

전장수 교수, 제16회 아산의학상 수상

- 퇴행성 관절염 분자생물학적 발병 기전 규명...기초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
- 아산사회복지재단, 오는 3월 21일(화)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시상식 개최



▲ 지스트 생명과학부 전장수 교수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·총장 김기선) **생명과학부 전장수 교수**가 아산사회복지재단 (이사장 정몽준)에서 수여하는 **제16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선정**됐다.

‘기초의학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전장수 교수는 **지난 23년간 퇴행성 관절염의 분자생물학적 발병 원인을 규명하는 세계적인 연구로 퇴행성 관절염 기초 연구 분야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**받았다.

전장수 교수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세포의 신호전달체계를 연구했으며, **2000년 지스트 생명과학부 교수로 부임해 현재까지 연골 퇴행 및 퇴행성 관절염 분야를 연구**하고 있다.

특히 2014년에는 아연이온이 세포 내에서 연골 퇴행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국제학술지 「셀(Cell)」에 게재했으며, **2019년에는 「네이처(Nature)」를 통해 세계 최초로 콜레스테롤과 퇴행성 관절염의 상관관계를 발표**했다.

또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규명에 대한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과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발굴한 연구 결과를 「관절염과 연골(Osteoarthritis and Cartilage)」에 게재하는 등 **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기전, 발생 억제 표적 도출, 발생 억제 물질 발굴에 이르기까지 퇴행성 관절염 전체 연구 분야를 전 세계적으로 선도**하고 있다.

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임상 전문의와 기초 연구자들로 구성된 **'대한연골 및 골관절염 학회'** 창립에 참여하고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퇴행성 관절염 연구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.

아산사회복지재단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**2008년 아산의학상을 제정**하였고,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**연구의 일관성과 독창성, 국내외 영향력, 의과학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**해 제16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했다.

제16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은 3월 21일(화) 서울시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.